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 종 선 의원



“대전의 새로운 중심, 서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문·일답)입니다.

박 종 선 의 원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금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행정상의 난맥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제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재미 삼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장우 시장님과 인연 맺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정치입문도 같은 시기에 했고 국회에서 보좌관 동기생이고 또 한때는 가족모임도 같이해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에 대해서는 성품과 인격, 또한 정치력 등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계신 어느 분보다도 제가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늘 이장우 시장님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30여 년간 이장우 시장님을 대할 때 경우 빠지는 짓을 거의 안 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왔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시의원으로 만나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개가 무량하고, 30년 전에 같이 보좌관 생활할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 국회의원이 욕심나서 지구당 위원장을, 모 당에서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상의했던 분이 이장우 시장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민하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용기 있게 가야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가서 국회의원 하시오.”, 그래서 나왔다가 공천도 못 받고 돈만 쓰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던 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장우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력, 추진력 또 용기와 결단력, 특히 국민과 시민에 대한 애민정신 이것을 제가 상당히 존경스럽게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려는 모든 부분부분이 전임 시장 또 전 시정에서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구태스럽게 이것을 상황상황, 입법정책실과 저희 보좌팀에서 만들어진 질문원고를 낱알이 질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시장께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40분간 할애된 질문을 20분에 딱 마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원회 의원처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얼굴 붉히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대안의 측면에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복합환승센터,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이거 참 아주, 여기 제 고향인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 땅값만 79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조성비 포함해서 1,110억, 지금 한 5년 가까이 대전시민의 세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렇게 방만하고 무계획적이고 비실용적으로 방치해서 대전시민의 세금을 자고 있게 만든 역대 시장들을 제가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장께서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지금 저것은 KPIH와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소송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전임 시장 때 이게 소송이 돼서 1심 소송에는 승소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하기에는 현재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후에 있을 최종 승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래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영개발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는데 민자유치를 추가로 다시 했을 경우에 오는 혼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에 제가 시장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게 지금 민자유치할 때 대전시에서 청사진을 지역주민들에게, 유성구민들에게 엄청난 무지갯빛을 제공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저 주변상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공영개발을 하면 난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공영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나 지역이익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일단 민간사업자가 1차, 2차, 3차, 4차 무산이 됐는데 다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 터미널 하나 세우는 데 10년 이상 착공도 못 시키는, 이것은 정말로 무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구청장 때 사실상 용전동 복합터미널 현대화를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대전시정이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차례나 무산돼서 결국은 공영개발로 가기로 결정했고, 공영개발로 가기로 결정한 이상 제가 할 일은 신속하게 스피드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해서 특히 유성구민들, 서남부권 주민들, 나아가서 충청남도 동쪽에 있는 많은 도민들한테도 빨리 혜택을 드리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저는 이장우 시장께서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100%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공교롭게도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단 말이지요.

오늘 학하동 주민들께서 들고 계신데 정신병원 치위달라고, “홍물을 치워주세요.”

제가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접수해서 시립정신병원을 오늘 시정질문에 넣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선거 낙선하고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왕래했는데 전임 시장 있을 때 왜 홍물을 저렇게 방치해 두는가를 제가 엄청나게 걱정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민원도 제기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시의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시장께서도 제 성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원 개원하자마자 업무보고 때 국장께 이 부분을 질의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까지 연관을 하고 있는 건데.

학하동 주민, 유성구 주민들도 대전시민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과연 어떠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은 시립정신병원이에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약간 흐린 날씨인데 이거 보시면 녹십자 표시, 이 주변 다 떨어져 나가고 낡고, 여기에다 첨단과학산업벨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얼굴하고 맞습니까, 이게?

대전시립정신병원, 이것을 눈 뜨고 보고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이 상태를 방치해둔 전임 시장들의 행태, 사상, 철학, 제가 이것을 시장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의지를 갖고 해결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위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이 이런데 환우들이 쓰는 화장실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줄줄 새요.

이렇게 뒤에, 작년도에 8억 정도 예산을 부었습니다, 이거 고치겠다고, 기능보강 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쓰레기처리장,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도 이거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다 떨어지고.

8억 작년에 쏟아 붓고, 시민 세금.

이게 시립정신병원입니까?

동료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시장님,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테이블입니다.

◆ **박종선 의원** 이게 뭐 같아요, 테이블이지요.

테이블인데 이게 전선 감아놓는 건설자재입니다, 건설자재.

건설자재를 갖다가 민원실의 탁자로 쓰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따가 시장님께서 답변 잘 못 하시면 뒤에 더 처참한 환경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자,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 시립병원, 완전 폐건물이지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귀신 나올 귀곡산장 같습니다, 귀곡산장.

의원님들 보셨지요, 귀곡산장.

이게 시립정신병원이라는 혐오스러운 이름까지 쓰고 있고 그 앞에다 ‘대전’ 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 이거 기능보강, 수리하겠다고 13억 또 들어가는데, 물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4년간, 5년간 30억 들어갔어요, 여기다 갖다준 돈.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공익시설물을 담보로 한 대전시에서 예산 투입하고 관리한다는 사실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고 이장우 시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생각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마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선 의원** 현대식으로 지어야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그리고 대전시립정신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러면 제가 뒤에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도 해야지요, 이전 포함해서.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전하는 문제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느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시설도 어느 곳에 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가 일류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반대의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많은 민원과 갈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담당국장이나 직원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낱낱이 시장께 질문하면, 그분들 위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전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서 온 것 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답변을 했던데 지금이라도

대전의료원이, 시장께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취지가 뭐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의료원 설립취지는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코로나든 전에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 **박종선 의원** 대전의료원은 생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시민들에게 저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의료원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 돈 있는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사실 충남대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아마 전전임 시장, 벌써 여러 해에 걸쳐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착공이 늦으니까, 이게 아마 절차와 과정을 다시 밟으려면 약 2년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걸리더라도 이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도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을지대학병원 같은 데도 정신질환자들을 별도로 3층인가 5층에 두고 있어요, 병실을.

저희도 위에 다시 3층 정도만, 설계를 잘하게 되면 상층부에 3층 정도를 충분히, 지금 148명 정도가 여기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입원 또는 수용이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전의료원에, 이것을 시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는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이 잘못하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가장 최적의 방안은 늘 있는 곳에서 신축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옮겨가다 보면 옮겨가는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또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경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 **박종선 의원** 맞는 말씀인데 저 위에 보셨지요, 학하동 주민들 와계신 거.

우리 학하동 주민은 대전시민 아니고 옮겨가는 동구 주민만 대전시민입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 **박종선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 얘기는 어디로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옮겨가는 지역과의 갈등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박종선 의원** 지금도 현재 갈등이 있고, 보세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갈등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종선 의원**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학하동 지역에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34세대가 들어서서 조망권의 90%가 전부 저 바로 옆의 대전시립정신병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봐서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시설을 황경아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 그 옆에도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틀림없이 민원이 또 야기될 거라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지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든 어떤 형태의 병원이든, 환자든 보호자든 최신식 시설에 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학하동 이쪽을 다 직접 운전하면서 둘러봤습니다.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 또 학하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 병원이 있어서 학하동 발전을 우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 특정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있을 때, 그전에는 신생원이라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역사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그런데 대전시립정신병원 건립 당시에는 상당히 외곽지역이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눈에 안 닿을 정도의 그런 공간, 지역에 건립됐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그냥 5m도 안 가는 쪽에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요, 그리고 불과 100m에 634세대가 들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모든 화살이 대전시를 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됐든 신축도, 이전신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도 의원님 말씀에…….

❖ **박종선 의원** 이전신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신축을 하든, 또 이런 신축을 할 때 시민들에게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신축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에서 정신병원이라도 건축은 더 훨씬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환경과도 맞고.

그렇지만 들어가는 위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축하는 문제는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방식은 충분히 용역하고 논의를 해보고 검토해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박종선 의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이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지만 시장이 특정지역을 해서 주민들 갈등이 잘못하면 거세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전 포함해서, 현 지역에 신축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어쨌든 신축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신축부지와 관련된 새로운 곳은 어떤 곳으로 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또 부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러면 이전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고려할 수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 **박종선 의원** 그러면 뭐, 뒤에 제가 잔뜩 질문을 준비해서 이장우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의원님께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러니까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의사를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장우 시장은 잘못된 게 없어요, 전임 시장이 방치해서 그렇지.

단 한 가지, 동영상 조금만 틀어주세요.

주민자치회장 오셨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동영상.

이전을 만약 못 하실 경우에는 아주 최첨단의 첨단의료정신보건센터…….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참고로요, 정신병력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고 또 연세가 들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시설이라도 과거처럼 정신병원이라고 이름을 달아놓는 것은 아주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하나도 그 지역에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학하동은 요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또 계룡산 줄기에서 학이 내려왔다는 자리인데 제가 요즘 둘러보면서 학하동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의원님하고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은 일단 검토를 즉시 해보고요, 신축 문제를 떠나서 이전하는 문제는 과연 시 외곽지역에 가장 적합한 곳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또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래서 만약에 현대식으로 짓는다면 정신건강복지의료센터, 토털로 말이지요.

지금 마약중독, 도박중독, 청소년 외상트라우마 이런 환자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들이 야간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한때 술을 좋아해서 술을 죽 마셨고 지금은 술을 끊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도 자신이 알코올중독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145만 중에서 10만 명은 될 겁니다, 10만 명.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고요, 시장님.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정신건강 그리고 금연학교, 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도박중독 치료학교, 폭력형의 치료학교, 이런 토털의 어떤 정신복합치료시설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성숙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도 제 가족 중에 꼭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설들이, 인근에 있는 이웃들도 저런 시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병원 이름이든 그 안의 시설이든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국민들 간의 혐오적인 생각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이장우 시장께서는 애민정신, 시민을 사랑하는 정신이 굉장히 남달라요.

제가 기억나는 게 구청장 재직 시에 만나러 갔더니 중앙시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까지 갔습니다.

핸드폰으로 “과장님 같으면 이런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막 나무라시던데,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놓고 공무원이 일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이장우 시장, 제가 기억합니다.

시장께서는 기억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세세하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또 학하동 주민들, 유성 주민들의 애환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시립정신병원, 시장님 한 번만 더 보시지요.

이게 부산시립정신병원입니다, 이게 대전시립정신병원.

기가 막히지요, 부산시립정신병원.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기도 시립정신병원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게 아주 부적합하네요.

❖ **박종선 의원** 부산시의회에 제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요?

여기 시장님 내부 한번 보세요, 시립정신병원.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 그렇게 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박종선 의원** 어쨌든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시간 많이 지났네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스포츠타운 동영상…….

잠깐, 여기 충남방적 부지 시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건 제2의 대덕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산업용지 500만 평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밸리를 구축하는 안들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아이고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하고.

대전교도소 부지 2027년에 이전하는데 저건 또 어떻습니까, 계획이?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거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좋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저하고 맞춘 게 아닌데, 짜 맞춘 것도 아닌데 생각이 같네요, 시장님하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리고 산업용지 500만 평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용지 전수조사를 거의 끝냈고요.

곧 중앙정부에서 국가산단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가산단 요청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직접 우리 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서남부권 특히, 관저동 중심으로 하기동까지 전체 일원을 완전히 새로운 대전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기가 막힌 발상이시고 제가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저만 치네요.

아주 우리 시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서남부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아주 지금 난제고 난항에 빠져있는데요.
이거 계획도 제가 동영상…….

시장님.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 가장 늦게 준공돼도 2027년.

저희가 지금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인허가 행정절차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상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도 광역단체는 종합운동장을 하나는 반드시 갖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한밭운동장이 헐리면서 종합운동장이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또 나중에 전국체전이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민의 건강권 또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을 위해서라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신속하게 절차를 마쳐서 준공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전임 시장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GB 해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난제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에서?

그것이 무난하게 잘 실행이 된다면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난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지 않습니다.

U대회를 대비해서는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업비는 한 5,872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어떤 상황이나 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국토부 실장이 직접 와서 둘러봤고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께도 우리 대전 발전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직접 건의를 이미 드렸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께도 벌써 몇 차례 대전의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을 위해서 특히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포함해서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조치를 해달라, 때로는 정 상황이 저기하면 패스트트랙 적용까지 요청을 해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이미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관 짓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의 끝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2단계 중앙투자심사도 그때까지 완료를 해볼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저한테 보고는 2029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2029년엔 너무 늦다 그래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아이고 좋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추진력과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음, 이거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한번 잠깐 줘.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니까 잘 보셨을 겁니다, 이거.

서남부스포츠타운 예정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한 교도소, 대정동, 계산동, 학하동 일부 지역, 땅이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지요, 땅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빈계산 앞에.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의원님, 하여튼 여기는 제가 관저동부터 학하동, 한밭대까지 지난 휴가 때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전 골목을 다 돌아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러셨어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 **박종선 의원** 여기가 이장우 시장께서 공약한 500만 평 부지 중에 교도소 부지, 충남방적 부지 그리고 저는 스포츠타운까지 포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말이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서남부에 대전의 미래먹거리와 대통령 공약이행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박종선 의원** 예.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그래서 지난 휴가 때 직접 대전시 웬만한 곳은 거의 다 둘러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시장님.

이건 말이지요, 여기 북대전IC 주변이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입니다.

현충원IC 11.1km, 이 지역까지가 약 3km 되는데, 14km 정도 되는데 말이지요.

이거 거리상으로 고속도로로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여기 있지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제2 대덕연구단지 센터는 천혜의 땅, 여기 학하동, 계산동, 대정동.

여기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교도소 부지, 충남방적 부지 일원으로 말이지요, 잘 개발하시면 자연환경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여기 도안2지구 아파트가 약 1만여 세대 현재 내년 말부터 승인 나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해결되고 학하동 주위에 주택 정주 조건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이장우 시장 공약 500만 평 부지를 여기서부터 200만 평 출발하시게 되면 대통령 공약도 완성되고 이장우 시장님 공약도 완성돼서 대전의 그야말로 신성장 동력원, 이걸 만들어낼 수 있고 엄청난 일자리, 먹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땅이 이 지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사실은 산업용지든 뭐든 적시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출발을 해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전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출발하다 보니까 우려가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 전에 우리나라 우수한 대기업에서 대전에다 한 8천억 정도 투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용지 공급, 또 국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대전이 많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미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또 대통령 공약이행 이것은 대전의 중요한 호기가 됐고 또 하나는 유성IC부터 서대전IC까지 고속도로를 대통령 공약에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확장을 넘어서 한 7km 정도는 지하화로 넣는 것이 도시를 확장하고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내부에 있는 고속도로가 대전시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내부고속화도로로 전환해서 시민들이 돈 안 받고 어느 곳에서도 고속화도로를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의원님 지역구를 포함한 유성 지역에 만성적인 정체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라도 유성IC에서, 당진~대전 간 JC부터 출발을 해서 도안신도시까지의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IC를 분산시켜서 도안IC 만드는 문제까지 포함해야 충남대학교 주변, 유성IC 주변 이런 만성적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편익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하루라도 신속하게 빨리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대전 발전의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장우 시장님을 아주 공격 좀 하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저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대전의 미래, 또한 유성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한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의회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같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민 복리후생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상생을 하면서 대전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 **박종선 의원** 경청해 주신 우리 학하동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런 졸작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